

미국 명문 대학 입학 결과 분석 (Class of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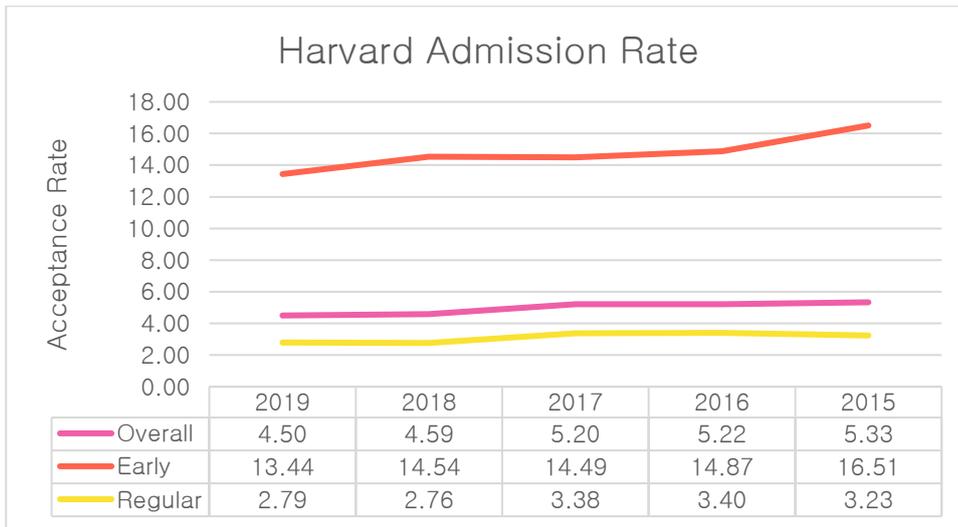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한 기나긴 여정의 결과도 3 월말로 끝나고 주변 많은 사람들로 부터 다양한 결과를 듣고 축하도 하고 놀라고 걱정도 되는 입학 결과의 해였다. 올해 입학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충격적있다”가 어찌보면 더 정확해 보인다. 최근 며칠간 수백명의 미국 대학 입학 컨설턴트들과 그룹 대화를 통해 이는 결코 한국 학생들만이 아닌 미국 학생들도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 앞으로 어떻게 입시 방향을 잡고 지도 해야 하는지를 대학이 제시한 해라고 볼수 있다. 학교별 입학 상황을 간단이 정리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앞으로 준비 해야 하는지를 깊게 살펴 보기로 하자.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입학처장인 윌리엄 피츠시먼스(William Fitzsimmons)에 따르면 “ 독특한 경험들과 재능들을 가진 합격생들이 미래 하바드와 우리 사회를 위해 확실히 공헌 할수있는 학생들을” 뽑았다고 한다. 올해 총 43,330 명이 지원해서 정시(Regular)에서 1015 명이 조기 입학(Single Choice Early Action)에서 935 명이 총 6,958 명중에서 합격하였다. 결국 조기와 정시 모두 합하여 총 1950 최종 합격 되었다. 이는 지난해(42,749)보다 지원자들이 증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생은 감소한 수치로 하버드가 공격적인 학생들 리쿠르트와 재정보조 정책으로 합격생들 대부분이 최종 등록 할거라는 확신에서 뽑은 수치이고 가능한 대기자까지 가서 다시 평가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려는 의도도 있다. 참고로 지난해 총 1962 명이 합격 되었다.

올해 합격생들중 20%는 전혀 등록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하바드에서 이 학생들에게는 \$2000 정도 이사 및 정착 비용으로 제공해줄 계획이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세계 89 개 국가에서 입학 허가 되었고, 외국 국적 학생들 12.3%, 미국 이중 국적 8.9%, 중부 대서양주 21.7%, 남부 19.6%, 서부 17.3%, 뉴잉글랜드 16.6%, 중서부 11.8%, 해외 미국령 출신들이 13% 입학 허가 되었다. 특이한점은 미국 남부 지역 출신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 합격이 증가 했다. 남녀 비율로 보면 거의 동일 하나 남자 50.2%, 여자 49.8%가 입학허가 되어 최근 여학생들 강세에서 올해는 남학생들 조금 더합격 했다. 참고로 조기 합격자들중 여학생 51.3%로 남학생에 비해 1.3%를 더 뽑았다.

다양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합격생들중 흑인 14.8%, 라틴 12.4%, 아시안 미국인 25.4%, 하와이언 0.6%, 인디언(Native American) 1.8%, 그리고 백인 45%가 합격을 했다. 아카데미 흥미 측면에서 지난해보다 컴퓨터 전공 11.6%, 사회 과학 분야 5.1%, 인문계 4.2%가 증가 하였고 아시안계 미국인 5.1%, 라틴계 학생 3.4% 지원자가 증가 했다. 그리고 가족중 처음 대학을 지원한(First Generation) 지원자들도 13.8%나 증가하여 어느 하나 감소한 수치가 없어 하버드 입학 담당자들이 무척 다양성, 전문성, 공헌도, 리더쉽, 잠재력, 그리고 지역적인 배분까지 고려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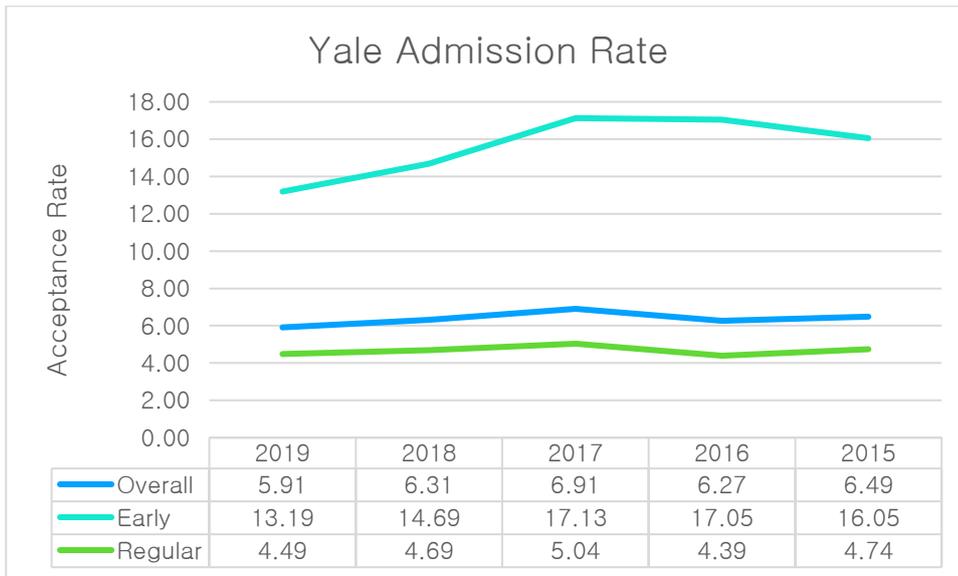


(예일 대학교)

예일은 두개의 거주 칼리지를 3년전에 완공하여 매년 입학 학생들 수를 증가 하고 있다. 동시에 재정보조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재정적인 걱정없이 학교 생활을 할수 있게 하여 보다 우수하고 유능한 학생들 리쿠르트를 하고 있다. 올해 조기 지원자 총 6,016 명중 794 명이 합격하였기 정시 지원자 30,827 명중 1,380 명이 입학하여 총 36,843 명이 지원하여 2,178 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지난 3년간 꾸준히 입학 학생들의 수를 증가하여 새로 완공된 두개의 거주지 칼리지를 채우고 있어 아마도 내년까지만 예일이 계획한 균형있는 학생들 수를 모두 채울것이라 예상된다.

예일은 하바드와 비슷하게 엄청난 재정 보조 혜택, 지역 요소, 부모의 경제력, 다양성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입학을 결정하였다. 올해 50 개주, 63 개 국가, 그리고 1400 개 고등학교에서 입학생들의 배출하였다. 물론 소수민족과 가족중 처음으로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입학은 어떠한 한요소를 가지고 결정을 하자는 않지만 예일의 경우는 학생이 예일대학에서 중요한 리소스를 될수 있는 학생인지와 예일 대학에서 어떠한 공헌을 할수 있는 학생인지를 판단하여 주의 깊게 학생들 원서를 읽고 입학을 결정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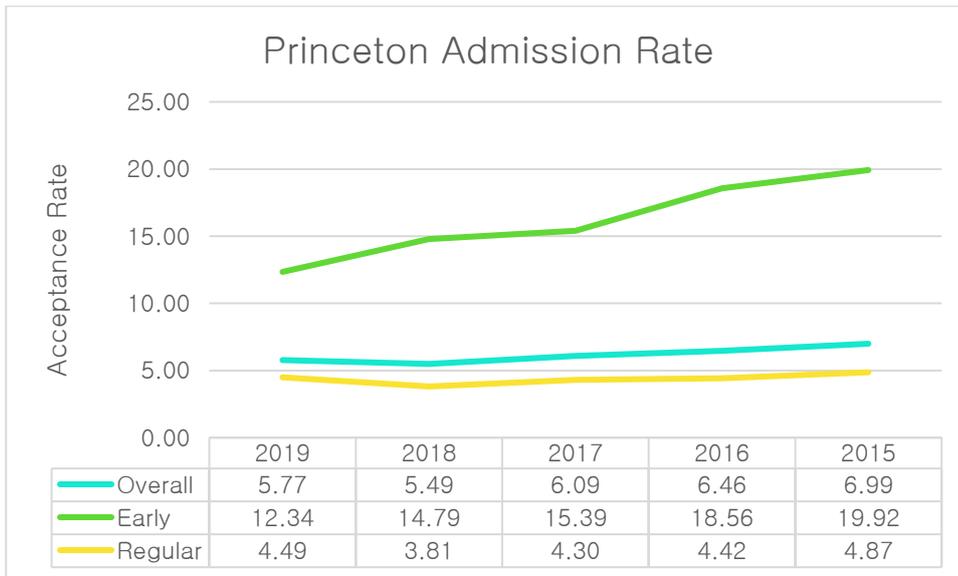
(프린스턴 대학교)

프린스턴 역시 재정보조 혜택을 다양한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더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한 해였다. 올해 총 32,804 명이 지원하여 총 1,895 명이 입학허가 되었고, 대기자는 902 명이다. 프린스턴이 예상하는 신입생 적정 규모는 1296 명이다. 총 161 개 국가에서 10,813 개 고등학교에서 지원하여, 최종 합격자 1,895 명으로 조기 전형 총 지원자 5,335 명중 743 명과 정시 전형 총 지원자 27,469 명중 1,152 명이 입학허가 되었다. 전체 입학률은 5.77%으로 당분간 더 심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좋은 소식은 2022 년 부터 프린스턴은 4 년간 매년 125 명씩 총 500 명 정도의 학생을 증가할 계획이 있어 현재 10 학년부터 기회를 더 가질수 있다.

입학 허가된 학생들 보다 깊게 살펴보면, 1) 남자 48%, 여자 52% 2) 유색인종 56%, 백인 44% 3) 공립 학교 63% 4) 레가시(Legacy) 11% 5) 엔지니어 전공 23%, 인문학 15% 등으로 많은 대학들이 엔지니어 전공자들을 더 많이 뽑았고 동시에 지원자수도 많아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프린스턴의 경우는 분배 커리큘럼(Distributional Curriculum)으로 많은 지원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관련 어느정도 확신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하다. 막연히 전공을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도 인문학, 엔지니어링등의 큰 부분에 대한 흥미를 보이면서 깊이 있는 경험과 다양한 학업 경험을 균형있게 배운 학생들을 선호 한다. 물론 학생이 학교를 위해 어떻게 공헌할지도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엄청난 펀드로 재정보조 확대와 다양한 리쿠르트 방법으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동시에 이들이 프린스턴을 위해 공헌하고 추후 사회에 나와 프린스턴 에서 배우 교육을 실천 할수 있는 학생들을 많이 리쿠르트한 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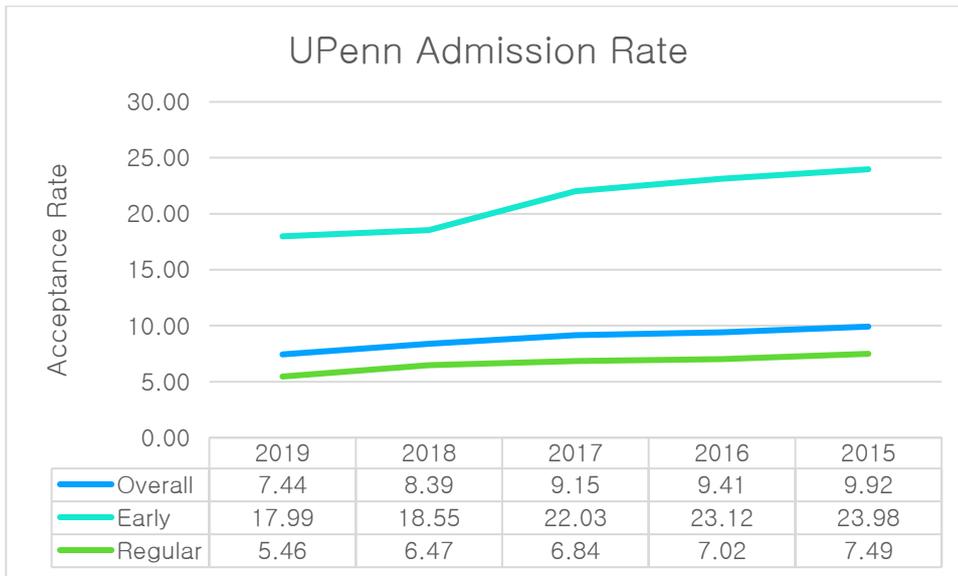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

유펜이 예상한 신입생수는 2,400 명 정도이다. 올해 지원한 학생들은 총 44,960 명으로 이중 3,345 명이 입학 허가 되었다. 유펜은 코넬과 더불어 규모가 크고 학생들 지원자수와 뽑는 학생들도 많아 최대한 서류 작업을 간편화 하여 입학을 평가 했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에세이, 추천서, 인터뷰등 모든 분야에서 학생들 평가를 가지고 입학을 결정한 요소로 바뀌면서 입학이 많이 까다로와진 학교중 하나이다.

입학 허가된 학생들의 평균 SAT 성적은 1460-1550 있고 ACT 는 33-35 점 사이이다. 미국 50 개주에서 입학생을 배출 했고 가장 많은 입학생들의 배출한 주는 펜실베이니아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플로리다주, 그리고 텍사주 있다. 외국 학생들은 총 14%가 약 100 개 국가에서 입학 허가 되었다. 여학생 53%와 남학생 47%, 유색인종 51%, 백인 49%, First Generation 15%, Legacy 13% 등으로 다양한 출신과 균형을 유지 하며 학생들을 선택 했다.

유펜은 규모가 크지만 학생들이 밝고, 전공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리서치 경험, 사회에 공헌도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선발 하는 대학이다. 다양한 코스를 깊게 수강하여 자신이 흥미 있는 과목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다면 입학에 도움이 되고 가능한 조기 지원을 해야 훨씬 입학에 유리하다. 유펜 역시 재정보조 확대로 다양한 지역과 저소득 자제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리쿠르트 하고 있다. 갈수록 부자 대학들이 더 우수한가 유능한 학생들을 많이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갈수 받게 없는 상황이 되었다.



(브라운 대학교: Brown University)

지난해 브라운은 총 35,438 명이 지원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보다 9% 정도 지원자수가 증가한 38,674 명이 지원하여 정시 결과 입학률은 브라운 역사상 가장 낮은 4.8%로 가장 입학 결정이 힘든 해였다. 물론 전체 합격률은 6.6%로 다소 높아보이나 실제로 조기 지원이 아니면 정시 지원에서 합격은 그야말로 입학 전쟁이다.

브라운 입학처장인 로건 포웰(Logan Powell)에 따르면 “올해는 의도적으로 정시에서 낮은 합격자수를 주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조기에서 769 명의 많은 합격자수와 학생들이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융자(Loan)를 재정보조로 대치하여 합격자들중 많은 학생들이 최종 등록 할거라는 것을 예상 했기 때문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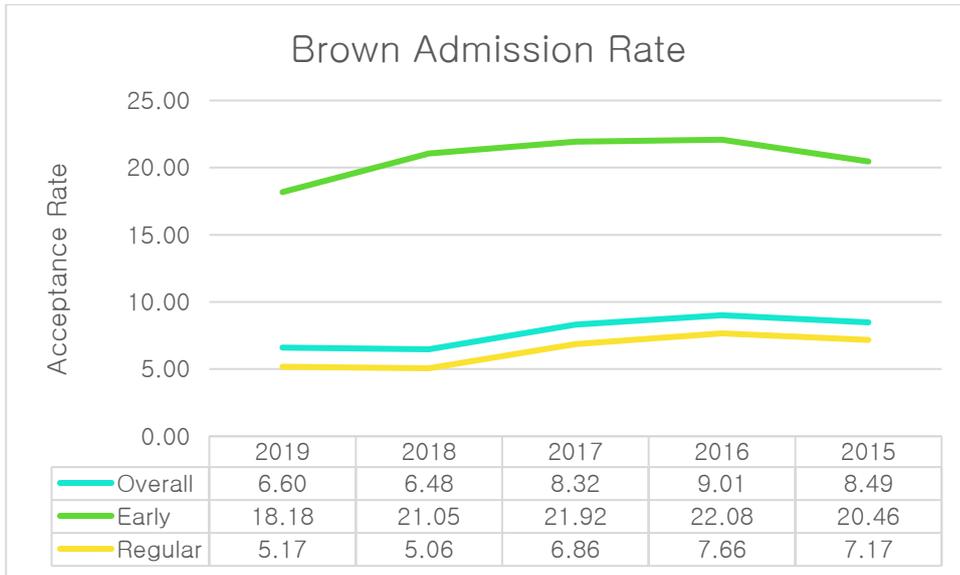
보다 구체적으로 합격생들의 구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재정보조 신청자 65% 지난해보다 1% 정도 증가 했고, 다양한 인종 49%, 백인 51%, 가족중 최초의 대학생(First Generation) 14%로 지난해보다 1%가 증가 했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First Generation 학생들 합격자수를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보다 폭넓은 브라운 교육을 제공 하겠다는 의중이 있다.

50 개주에서 모두 합격생들을 배출했기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뉴저지, 텍사스에서 많은 학생드리 합격하였다. 외국 학생들 입장에서 총 80 개 국가에서 합격생들이 나왔고 이중 중국, 캐나다, 인도, 한국, 그리고 영국 순서로 많은 합격생들이 나왔다. 지난해 총 11% 외국 학생들이 합격했는데 올해는 13%로 약 2%가 지난해 비해 증가 했다. 전공 흥미 측면에서 과학 관련 전공자들은 33%로 지난해 비해 2% 증가했고 인문학 전공은 18% 있다. 브라운과 RISD 복수 전공 합격자는 18 명, 7 년 의대 PLME(Program in Liberal Medical Education) 과정에 94 명이 합격 하였다.

결론적으로 브라운은 조기 지원자중 769 명, 정시에 1,013 명으로 총 1,782 명의 학생이 총 38,674 명 중에서 합격하였다. 재정보조 확대, 외국 학생과 First generation 입학률 확대, 조기 지원 합격자

증가등의 이유로 정시 지원자들의 합격이 매우 힘든 해였고 많은 우수한 학생들도 입학이 많이 거절된 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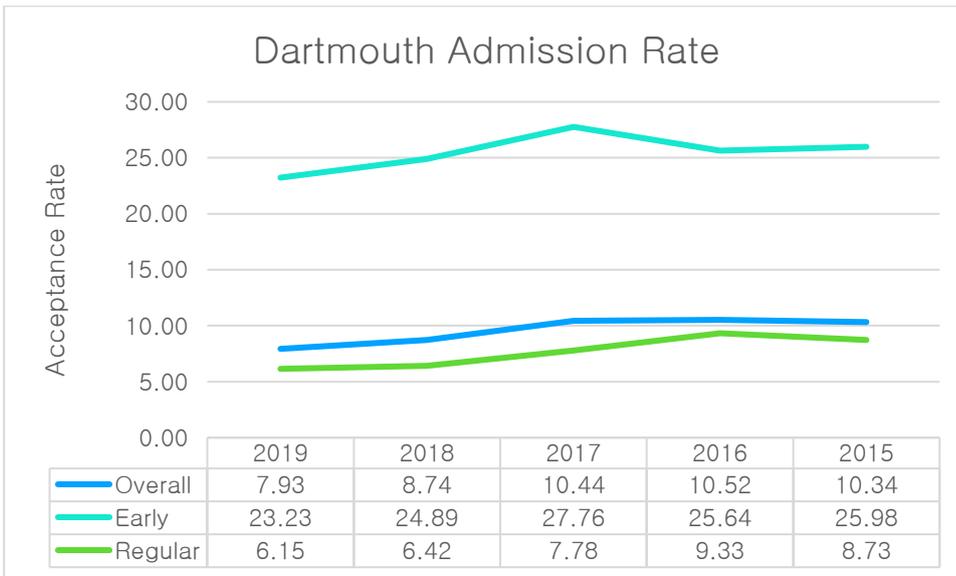
(다트머스 대학교: Dartmouth College)

다트머스는 올해 총 23,650 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여 1,876 명의 학생들이 합격하여 7.93% 입학률을 보였다. 이중 조기자원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2,474 명이 지원하여 574 명이 합격하여 23.2%의 합격률을 보였고, 정시 지원은 총 21,176 명중 1,302 명이 합격하여 6.15%의 합격률을 보였다. 다트머스 입학 처장에 의하면 “올해 학생들이 많은 분야 흥미가 있고, 지적 호기심도 있으며, 창의성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하였고, 다트머스 생활정보 학교 공동체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졸업후에도 학교와 사회에 공헌 할수 있는 인재들을 뽑았다고 한다.”

입학 허가된 학생들조차 95%는 학교 성적이 상위 10%안에 있고 이들부터 약 500 명 이상이 학교성적 수석 또는 차석인 학생들이다. SAT 1 과 ACT 평균 점수는 각각 1501 점과 33 점이며 미국 50 개주와 세계 69 개 국가에서 입학생들의 배출 하였다. 합격생들 중에서 미국내에서는 캘리포니아 출신, 남부와 서부 지역 출신들이 40%이고 외국 학생들은 12% 이고 특히 영국, 중국, 캐나다, 브라질 출신의 학생들이 국제 학생들은 많이 입학 허가 되었다.

유색인종은 50% 이고, 도시 출신 학생들은 13%, First Generation 은 16%, 레가시(Legacy)는 9% 였다. 다트머스 역시 재정 보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체 입학생들 중 약 50%가 수혜를 받았고 이중 약 20%는 저소득층 자녀가 입학 허가 되었다. 재정 보조금은 평균 \$53,000 정도이고 부모님 년소득이 \$100,000 은 재정 보조 보장이 되었다.

다트머스는 학교가 산속에 위치해 있어 도전적이면서 자기 조절이 가능하며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고 극복 할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학교이다. 물론 최근들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입학 조건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학교를 한번만 방문하지 말고 가능한 저학년때 한번 그리고 11 학년때 한번 방문하여 학교가 원하는 것들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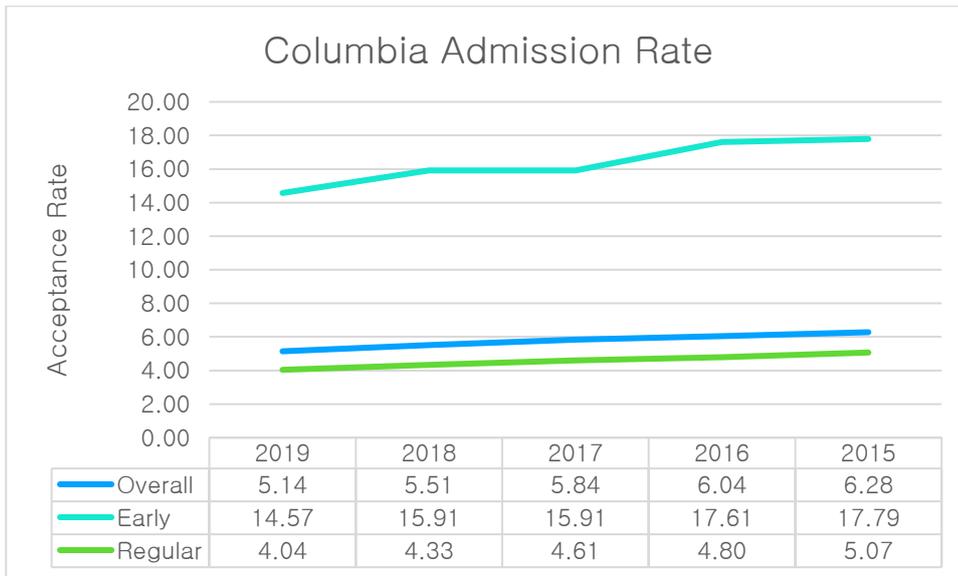
(콜롬비아 대학교: Columbia University)

최근 몇년간 하바드 다음으로 입학이 까다로운 아이비리그 대학중 하나이다. 단지 뉴욕에 위치한 이유 말고도 코어 커리큘럼, 인턴쉽 기회, 상대적으로 다른 전공보다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 여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인식 되면서 많은 여학생들 지원등의 요소를 추측 할수 있다. 콜롬비아는 엔지니어링 전공자가 콜롬비아 칼리지로 전과가 되질 않다. 대신 콜롬비아 칼리지보다 엔지니어링 전공이 조금은 입학이 유리하다. 물론 최근 몇년간 콜롬비아 엔지니어링 전공자들 입학이 절대 쉽지는 않았다.

올해 총 42,569 명이 지원하여 2,190 명의 학생들이 입학 허가 되어 5.14%의 입학률을 보여 하바드 대학 다음으로 경쟁이 치열한 학교였다. 4,461 명이 조기 지원하여 650 명이 입학 허가되어 14.6%의 입학률을 보였고, 정시 지원은 38,108 명이 지원하여 1,540 명의 학생들이 입학 허가 되어 4% 입학률을 보였다.

최근에 미국 아이비리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유튜브, 인터넷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다보니 학생들 자신의 색깔은 없고 비슷한 스펙과 경험들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준비로 만들어진 학생들이 많아 경쟁은 치열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 재정 보조 확대로 인해 아이비리그가 상류층의 자제들만 가는 대학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반듯이 리서치, 서머, 해외 봉사 활동등으로 스펙만 있는 인위적인 준비보단 자신의 여건에서 리서치나 서머 참여등의 기회를 갖지 못하지만 주변에서 봉사 활동, 여름 방학 동안 파트타임 취업을 통해 진짜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한 학생들이 입학 기회를 많이 가진 해였다.

콜롬비아는 학교 코어 커리큘럼, 다양한 학교 활동 경험, 뉴욕의 다양한 리소스 활용 능력, 학교 공동체와 졸업후 사회에 공헌이 가능한 학생들이 특히 올해 많이 입학허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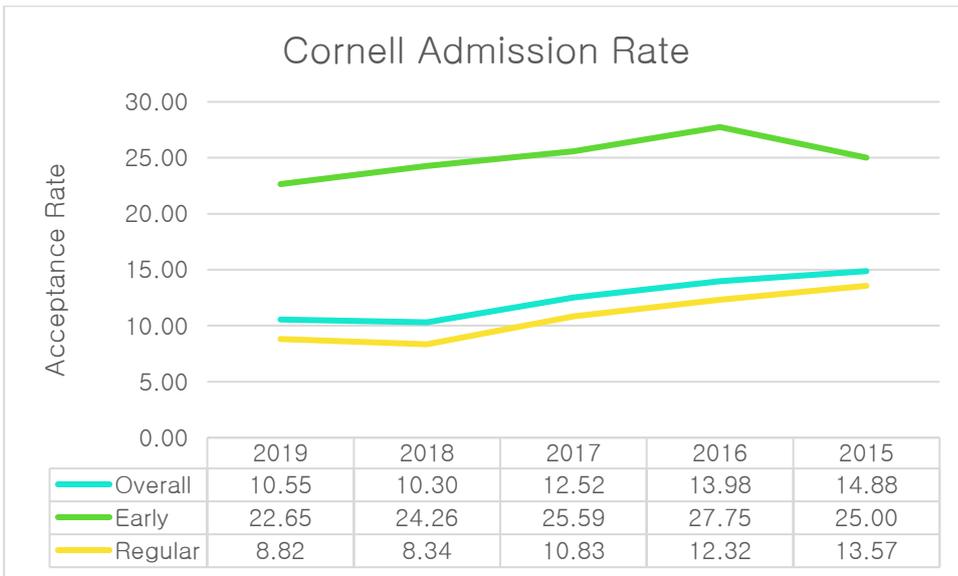


(코넬 대학교: Cornell University)

코넬은 다른 아이비 리그 대학들과 달리 입학 평가에 각 단과 대학 교수들이 참여 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원자들이 관심있는 분야를 정확히 어필을 해야 입학 가능성이 높은 학교이다. 다시 말해서, 관심있는 분야의 전문성과 깊이를 보인다면 입학에 유리하다.

올해 총 49,000 명이 지원하여 5,183 명이 입학 허가 되어 총 10.55% 입학률을 보였다. 6,159 명이 조기지원하여 1395 명이 입학허가를 받아 22.6% 입학률을 보였고, 정시 지원의 경우는 42,841 명이 지원하여 3788 명이 입학허가 되어 8.8% 입학률을 보였다.

미국 50 개주와 세계 95 개 국가에서 입학생을 배출하였고, 이중 국제 학생들의 비율은 8%이다. 가장 입학이 많은 주는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매사츄세츠, 뉴저지, 펜실바니아, 텍사스순이고, 국가로는 캐나다, 중국, 인디아, 한국, 싱가포르, 영국순이다. 코넬은 뉴욕주에서 일정한 토지를 제공 받아 사용하고 있어 그 보답으로 뉴욕주 학생들 출신을 더 많아 받고 그들에게 주립대 수준의 등록을 받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소수민족 학생들이 약 32%가 입학 허가 되었고 이중 First Generation 은 670 명으로 올 전체 입학생들중 약 12.9%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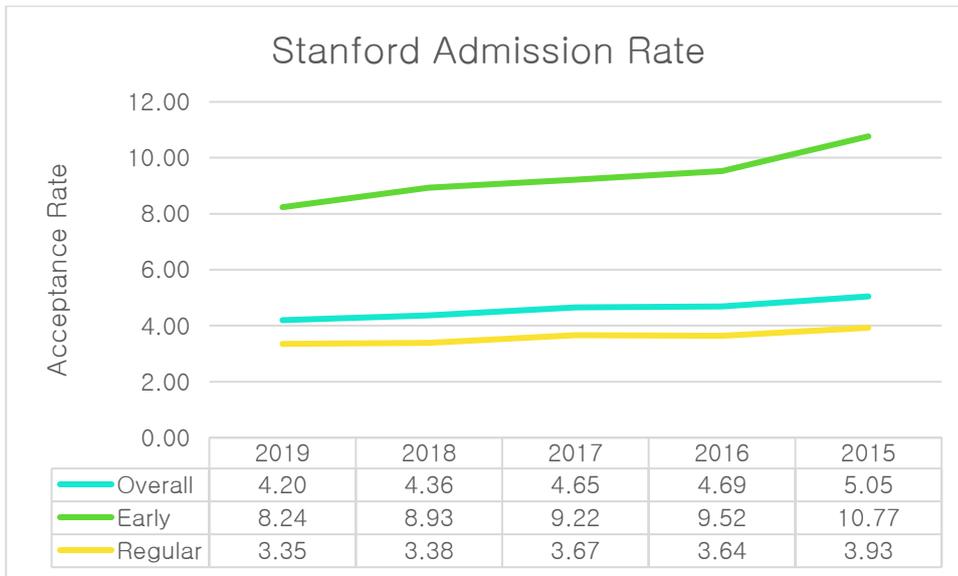
(스탠포드 대학교: Stanford University)

스탠포드 대학은 올해 학교 세일링(Sailing)팀 코치가 세일링 경험이 없는 학생을 스포츠 리쿠르트를 빙자해 학생에게 입학 허가를 준 사건이 있었다. 부모가 코치에게 \$500,000 뇌물을 주고 입학허가를 받은 사건으로 코치가 해고 되고, 학생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큰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학교 명성에 많은 피해를 본 스탠포드로서 더 공정하게 입학 심사를 했고, 기존 다른 운동팀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지 조사도 철저히 하였다. 그결과 그런일이 없었다 판정이 되어 많은 안심을 한 해이기도 하다.

입학에 커다란 변화는 없지만 올해 스탠포드는 크게 변한 내용은 부모님 연봉이 \$125,000 이하인 경우 학교에서 등록금 전체를 보조 즉 재정보조 수혜혜택으로 대체하였다. 이로 인해 저소득 자녀들이 많은 수혜를 받았다. 합격자중 18%가 First Generation 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이 입학허가되어서 명문 대학이 우수한 상류층 자제들만 관심이 있는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다양한 지역, 경제, 인종, 소수민족에게도 입학기회를 동등하게 주고 있는 학교란점을 명확히한 해이기도 하다.

올해 총 49,000 명이 지원하여 2,057 명이 입학허가를 받았다. 입학률은 4.19%로 지난해 4.36%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기 지원자들의 경우 총 8,500 명이 지원하여 700 명이 입학 허가 되었고, 정시는 40,500 명이 입학 허가 되어 1,357 명이 합격하였다. 입학률을 보면 각각 8.24%, 3.35%이다. 미국 50 개주와 세계 84 국가에서 입학생을 배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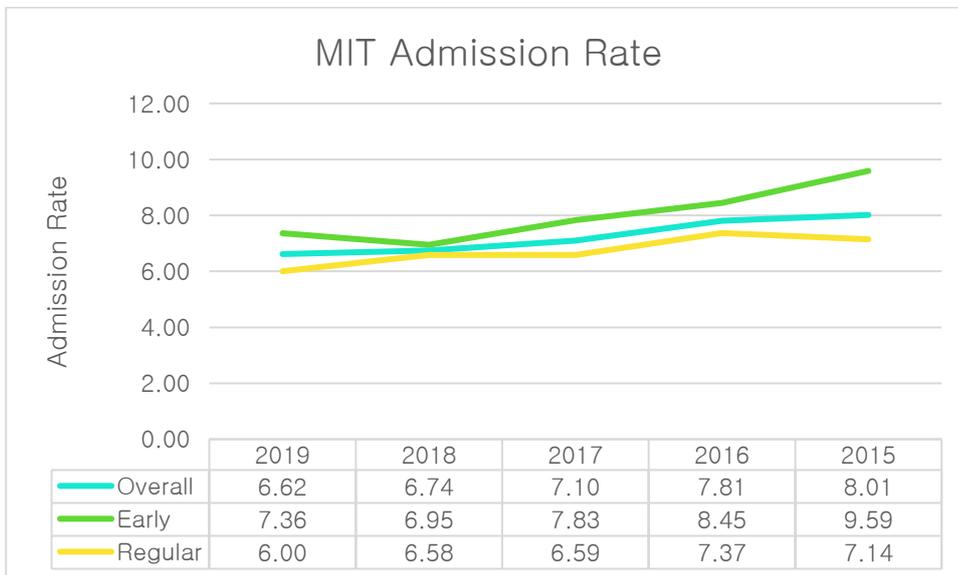
스탠포드는 아카데미와 운동이 균형 잡힌 우수한 사립대학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리서치, 인턴쉽, 신생기업(Start-Up Company)에 기회와 도움을 주는 학교이다. 입학 평가시 리더쉽, 열정, 창의력, 모험정신과 도전적인 정신을 많이 보는 대학이다. 밝고 따듯한 기후 조건 그리고 학교 근처 실리콘밸리의 리소스를 잘 활용할수 있는 지역적인 요소도 최적인 미국 최고의 대학중 하나이다.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는 총 21,312 명이 지원하여 1,410 명이 합격하여 6.62% 입학률을 보였다. 이중 조기 지원자는 총 9600 으로 707 명이 합격하여 7.36%의 합격률을 보였고, 정시 지원은 11,712 명이 지원하여 703 명이 합격 6%의 합격률을 보였다. 50 개주, 67 개 국가, 1000 개 고등학교에서 입학생들을 배출하였다.

MIT 는 명확한 입학 기준이 있기에 다른 어떤 대학들보다 입학은 힘들지만 준비는 명확한 학교이다. 도전적인 과목 수강, 높은 인품(High Character),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장소를 만들기 위한 유용한 아트, 과학, 그리고 기술을 사용하여 MIT 의 미션에 잘 맞는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 다시말하면, 깊고, 전문적인 관심 분야가 있어야하고 리서치와 경시 대회 입상이 있다면 입학 확률이 높아 질수 있다.



미국내에 아이비리그, MIT, 스탠퍼드 이외에도 많은 우수한 대학들이 있다. 하지만 이 지면을 통해 위의 10 개 대학들을 종합 분석 하면 앞으로 어떻게 미국 최고 대학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질 거라 생각 된다.

요즈음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소형 컴퓨터(스마트폰)를 들고 다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정보가 다 믿을만한지, 또한 주변 지인의 자녀들이 우수한

대학에 갈 경우 그들로 부터 얻은 정보를 자신의 아이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많은 학원과 유학원들이 있고 이들이 제시한 불법적인 스펙 쌓기, 거의 대필해서 역사 논문을 Concord Review 실을려고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형식적으로 준비해 포장하여 과학 경시 대회 참여 예를 들면 인텔, 구글, JSHS 등, 깊게 참여하지 않았는데 논문에 공저, AP 시험 개수를 많이 보이기 위해 수강 하지도 않고 많은 AP 점수 제출, SAT 1, 2 그리고 ACT 점수 취팅(Cheating), 시민권자가 입학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학생과 부모가 미국 주소지 사용(실제 거주하지 않고 또한 부모님 직업이 한국에 있는데도), 학생의 흥미와 관심 보다 유명한 대학에서 서머하면 대학 입학에 유리하다고 판단 유명 대학 서머 참여, 에세이 잘 쓰면 입학에 유리하다고 판단 무조건 유명하고 명문 대학 졸업생이나 학생들과 비싼 돈을 주며 에세이 작업(에세이는 18-19 세 수준에 맞는 학생들의 생각을 보는 것에 불과하지 에세이 잘 쓰면 입학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며 성적이 나쁜 사람이 에세이 잘 쓰면 성적이 보강 될거라고 생각 하는 것도 틀린 사실이고 에세이는 학생의 또다른 하나의 활동이며 성향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마치 에세이 잘 쓰면 입학에 큰 도움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미국 어드미션 결정 과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쓰라고 하는게 아니라 학생의 목소리를 학생이 직접 쓰는것이 가장 좋은 에세이이다), 마치 유명 서머 참여가 명문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고 판단 비싼 돈을 주면서 까지 미국 유명 수학 캠프 준비(PROMYS at BU, ROSS at OSU, SUMaC at Stanford)(원서상에 있는 수학문제 풀이와 간단한 논문 작성등 학생 실력과 상관없이 풀어주고 준비해주면서 거액을 들여 하는 경우)등의 경우를 많은 미국 대학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국과 한국 학생들의 입학 기준이 까다롭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종종 보고 있다.

미국 명문 대학 진학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희망일 것이다. 하지만 불법적인 요소, 적당히 속이려는 자세로 원서를 쓰거나 스펙을 꾸면 내는 것은 오히려 입학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 하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국 명문 대학 입학 스캔들로 인해 많은 대학들이 확인하고 또 확인 하는 입학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이는 더 엄한 잣대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또한 미국 명문 대학 입학이 조금은 돈과 입학이라는 상관 관계가 있는것 처럼 보여져서 많은 명문 대학들이 재정보조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더 많은 입학 기회를 주고, 부모님이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대학 교육 기회 확대(First Generation)를 통해 미국 명문 대학이 절대 부유층 자녀들 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란 점을 강조 하였고, 인위적인 준비 보단 자연스럽게 학생의 능력과 재능, 그리고 흥미와 공헌등을 깊게 확인하고 평가한 해였다. 그로인해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색깔이 없는 경우 입학이 거절되는 현상이 벌어진 해이기도 하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1. 원서상 에세이 대필 금지
2. 스펙을 위해 불법적인 활동 금지: 가짜 리서치, 인턴쉽, 시험 유출된 문제를 통한 각종 경시 대회 입상
3. SAT 1, 2, AP 점수 향상을 위해 부정행위 금지: 대학측이 알게 되면 미국 대학 입학 불가
4. 서머 입학을 위해 부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합격한 경우: 학원과 유학원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움 주는것

5. 가짜로 스펙 만드는것 금지: 학교내.외 활동이 균형이 잡혀야 하는데 학교밖 가짜로 만든 활동만 많은 경우
6. 잘 알지도 못하는 유명인들 추천서 요청
7. 가능하면 세번 이상 SAT 1 시험 보지 말것
8. 학교에서 정학, 퇴학등의 기록을 만들지 말것
9. 소셜미디어에 부정적인 내용과 사진들을 올리지 말고 댓글 조심 할것
10. 학생 능력과 실력에 비해 과한 학교 지원 자제
11. 막연하게 관심 있는 분야 전공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지 않기 특히 컴퓨터, 엔지니어링, 경제, 경영, 생명 공학, 국제 관계, 영문학, 디자인, 순수 과학분야등은 가장 입학이 까다로운 전공들이다.
12. 여름 방학 동안 한국에서 학원 다니면서 SAT 공부만 하지 말기

(앞으로 해야 할것들)

1. 고등학교 3-4년 아카데믹 코스 체계적으로 짜기: 가능하면 관심 있는 분야 학교에서 최고 레벨까지 가기, 문과와 이과 모두 깊고 균형 있게 수강
2. 균형잡힌 교내.외 활동 지속적 이면서 깊게 하기: 아카데믹 관련 클럽, 학교에 공헌 하는 분야, 개인적인 즐거움과 관련된 활동
3. 여름 방학 동안 흥미 있는 분야 개발과 모험적인 경험: 봉사 활동, 외국어 교환 프로그램 참여, 스포츠 또는 음악과 아트 분야 발전, 재능 개발과 확대, 일(Job) 경험등
4. 재능 있는 분야 경시 대회 준비(음악, 아트, 과학, 엔지니어링, 디베이트, 외국어, 수학등)
5. 저학년때 부터 칼리지 투어를 통해 자신과 잘 맞는 학교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기 그리고 관심 있는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대화
6. 주변 많은 정보는 참고로 하고 자신만의 유일한 특징을 만들어 발전
7. 충분한 리더쉽 경험
8. 자신 있고 흥미 있는 과목 깊게 공부하고 추후 대학 지원시 확실한 전공을 정할수 있도록 준비
9. 자신의 학교에 적어도 특정 분야에서 인정 받고 모든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 유지 하기: 추후 추천서 부탁시 잘써줄 선생님이 너무 많아 고민 할정도가 되어야 한다.
10. 12 학년이 되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업데이트 정보 준비하여 얼리 지원시 활용하고 추후 정식 지원시 원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도록 준비등이 있다.

지난 3년간 아이비리그 대학과 MIT /스탠퍼드 대학 지원 상황을 보면 매년 증가 하고 있다.

2017년도 아이비리그 총 지원자는 281,060 명중 22,805 명이 합격하여 8.11%의 입학률이었다. 그리고 MIT 와 스탠포드의 경우는 총 64,320 명이 지원하여 3,523 명이 합격 5.48%의 합격률이었다. 결국 2017년도 미국 최고 대학 10 개 학교들 총 지원자수는 345,380 명으로 이중 26,328 명이 합격하여 7.62%합격률을 보였다.

2018 년도 아이비 리그 총지원자는 306,909 명으로 이중 21,856 명이 합격 7.12% 합격률을 보였고, 스탠포드와 MIT 는 69,156 명이 지원하여 3,535 명이 합격 5.11% 합격률을 보였다. 2018 년도 미국 최고 10 개 대학 총 지원자는 376,065 명으로 이중 25,391 명이 입학허가를 받아 6.75% 입학률을 보였다. 전년도 보다 약 31,000 명 정도의 지원자가 증가 했고 입학생들의 수는 거의 전년도와 동일한 수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함을 볼수 있다.

올해의 경우 아이비리그 지원자 총 수는 311,948 명 이다. 이중 21,168 명이 합격하여 6.79% 입학률을 보였다. 물론 지원자수가 지난해 비해 약 5000 명 정도 늘어나 수치이다. 스탠포드와 MIT 총 지원자수는 70,312 이고 이중 3,467 명이 합격 4.93% 입학률을 보였다. 올해 미국 최고 10 개 대학 총 지원자는 382,260 명으로 이중 24,635 명이 합격하여 6.44% 입학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비해 6000 정도의 지원자가 증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학생은 756 명이 감소한 해였다.

미국에 약 27,500 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소수의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 모든 학교 1 등 학생들이 최고 명문 10 개 대학을 지원 한다고 해도 입학 허가가 못받는 학교들과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고 많다.

